

I. 연 혁

1. 개 항

백제시대 : 한금현이라 칭함.

신라통일후 : 침명 또는 투명이라 하여 양무군 (현강진군)에 속함.

고려조 : 비로소 해남 또는 영악이라 하였고 영암군에 속하여 현이 됨
이조태종 9년 (1409) : 현재의 진도군인 진도현을 합하여 해진현이라
칭함.

태종 12년 (1412) : 읍을 영악 (지금 현산면 일평리)에서 현지로 옮겨
오면서 영암 옥산땅을 아울러 다스림.

세종 19년 (1437) : 비로소 현감 1인과 훈도 1인을 두게 되었으므로 독
자적인 현정을 실시함.

세종 29년 (1448) : 지방행정개편에 따라 속현이던 화원면 (문내면 고당
리) 옥산현 (영암군의 냉천군곡) 죽산현 (마산면 맹진리)를
폐합하여 대개 현지와 같은 윤곽이 잡혔음.

고종 32년 (1895) : 관제개혁에 따라 현이 폐지되고 군이 되면서 해남
현이 해남군이 됨.

고종 건양원년 (1896) : 해남군 부근에 있는 도서를 나누어 완도군으로
이름됨.

광무 10년 (1906) : 진도군 비임지 삼촌면과 영암군의 소속이던 옥천
송지 북평면을 이속시켜 명실공히 현재와 같이 웅군의 면모를
갖춤.

1914년 : 완도군 군외면 어불도를 본군 송지면에 병합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자료 : 행정계

2. 위치경역

시군소재지	방위				총면적
		지명	경도		
해남군해남읍	극동	옥천면 봉황리	동경 126°15'	북위	km
성내리 4번지	극서	화원면 화봉리	동경 126°43'	북위	856.78
	극남	북평면 갈두리	동경	북위 34°18'	
	극북	화원면 매월리	동경	북위 34°45'	

3. 지형

동북부는 산악이 기복하고 서남부는 구릉평야 및 간척평야가 있어 비교적 지질이 비옥하며 농산물이 풍부하고 해안선은 장성곶포가 그림같이 수려하며 대규모의 고천암 간척지를 위시하여 굴곡마다 간척지가 있어 농토확장의 여유가 많아 농지확장사업만 활발이 진척되면 미래의 지도개조를 할만큼 조건이 좋은 편이며 현면적만도 전남의 7%로서 방대할뿐아니라 동서남북으로 목포시를 비롯하여 영암 강진 완도 진도 군에 접하고 있음.

가. 산악

영암군 월출산맥에서 등기하여 정한은 남북으로 뻗어내려 계곡면 서기산을 이루고 해남읍에는 금강산, 삼산면의 두륜산을 거쳐 송지면의 달마산까지 연하고 있음.

나. 하천

동북의 팔산천에 옥천평야가 있고 서류의 삼산천은 두륜산에서 기점 삼산평야를 이룩하고 서남에 구산천이 있어 현산남부와 송지 북부평야를 관개하며 서정천은 달마산에서 기원하여 서해로 흐르며 송지가차 및 군곡평야를 연결하고 있음.

자료 : 행정계